

# 자연의 발견(Die Entdeckung der Natur)

클라우스 헬트(Klaus Held)

도일 Buffertal대 교수

1. 유럽철학에 “자연”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런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한 사실은 아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이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자연 개념은 라틴어 “natura”로 번역된 희랍어 “physis”가 초기 유럽 철학적 사유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기원전 6세기경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개념형성은 그러나 사태와 무관하게 임의로 꾸며낸 일은 아니다. 오히려 개념이전에 주어지는 특정의 경험(eine Erfahrung)이 “physis”라는 일상언어적 단어를 통해 이미 언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 대해 성찰할때만 동아시아적 자연이해와 유럽적 자연이해를 내용적으로 실속있게 연결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허한 개념들만을 외적으로 비교하는데 그칠뿐이다.

“physis”라는 개념속에서는 개념형성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이미 친숙하긴하나 아직 대상으로 현출하지는 않았던 경험내용(ein Erfahrungsinhalt)이 대상화되어 주제화된다. 주제화를 통해 인간은 이러한 개념이전의 경험내용과 처음으로 거리를 취하며 관계맺게 된다. 나는 현대철학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는 이러한 선개념적 경험 내용과의 거리를 취하기 이전의 친숙성을 기술하고 해명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개념화 이전에 존재하는 저 경험내용에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physis”라는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 개념은 하나의 포괄적인 존재영역, 즉 “스스로”(von selbst) 생성되는 것들의 총체를 지칭한다. 둘째, 이 개념은 원인성(Ursache-Sein)의 한 방식, 즉 “자연”이라는 영역의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적인 바로 저 “스스로”-생성됨(das “von-selbst”-Entstehen)을 의미한다. 두번째 의미가 분명히 더 근원적인 의미이다; 왜냐하면 한 존재영역을 한정 시킬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존재영역의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적인 요소를 이미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철학은 그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생성과 스스로 이루어지는 생성을 구별해왔다. 그러나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 자체는 그의 원인이 결국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성된 그 무엇이다. 말하자면 자연이 원인이 됨이 실제로는 모든 것 일반을 포괄한다. “모든 것 일반” – 이것이 다름 아닌 세계(die Welt)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경험내용, 즉 “physis”라는 말을 통해 개념적으로 대상화되는 경험내용이 세계임을 암시한다.

2. 우리는 “세계”라는 말로 존재자의 총체를 이해한다. 그런데 “physis”라는 개념이 지난 근원적인 의미에 대응하여 본래 “세계” 개념의 핵심은 스스로 생성함에 있다. 스스로 생성함은 원인성의 한 방식이며 그 자체상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개념적 분석의 근본주제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주제화하기 이전에 경험하는 개념 이전의 친숙한 세계에서 출발할 경우 스스로 생성함으로서의 “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의가 향해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현출하는” 모든 존재자에 대해 우리는 주제화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출을 가능케 해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들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전제는 현출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현실적으로는 현출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현출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시체계는 언제나 규칙적인 연관을 형성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활동가능영역(Spielräume)을 이룬다. 니체와 후설 아래 현대철학에서는 방향설정을 위한 이러한 활동가능영역을 흔히 지평이라고 불러왔다.

지평들은 보통 우리에게 단지 비주제적으로만 친숙하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의식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그 누군가가 직업, 관심, 출생등으로 인해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물론 지평들이 지난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경험은 지평들이 다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세계에 속해있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지평들에 대해 비주제적으로 친숙한 것과 세계에 대해 비주제적으로 친숙한 것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평들은 경우에 따라 의식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인간들 혹은 개별 집단들의 관심에 따라 그때마다 변할 수 있다. 지평들은 우리의 습성에 종속적이며,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의지에 종속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지평들이 아무리 의식된다해도 비주제적인 배경으로 전제된 채 남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세계에 대해 개념화를 통한 명시적인 관계를 취할 수 없다. 이처럼 세계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영향력 행사에도 결코 종속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는 지평적으로 현출하는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etwas Unverfügbares)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이 앞서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선개념적 경험내용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인성에 대한 분석에서 “physis”라는 개념으로 대상화시킨 것이다. 우리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이라는 선개념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이 개념적 차원으로 전환될 때 남기는 자국이 인간이 원인이되어 생성된 것과 스스로 형성된 것에 대한 구별을 가능케 한다. 세계가 지평적인 현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계가 미리 주어짐은 개념적인 언어에서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3. 그러면 지평적 현출을 가능하게 해줌(die Ermöglichung des horizonthaften Erscheinens)이라는 현상을 처음부터 원인성으로서

개념화하여 대상화시키지 않고 기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출함”이라는 말은 일종의 운동(eine Bewegung)을 지칭한다. 이 운동은 자신과 반대방향을 지니는 또 다른 운동, 즉 자기를 숨기는 운동(die Bewegung des Sich-Verborgenhaltens)에 대해 대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근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출운동은 숨어있음으로부터 드러나 있음으로의 이행이며, 드러남의 과정, 가려져 있음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우선 세계를 열려있는 공간, 혹은 그 쪽을 향해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오해의 여지가 많은 생각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은 열려있는 공간을 존재자의 총체로 가득 채워진 하나의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생성하는 존재자의 총체라는 파생적인 자연개념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개념적 및 선개념적 의미에 있어 “physis”라는 개념은 생성 및 현출이라는 운동(die Bewegung des Entstehens und Erscheinens)과 관계가 있다. “세계”라는 차원의 열려있음은 바로 다름 아닌 이러한 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커다란 그릇이 지닌 정지해있는 상태가 아니라, 열림으로 이행해가는 운동, 즉 열림의 개시이다.

이러한 운동은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원인성으로 대상화되는데, 그 이유는 이 운동이 지평들의 활동가능영역(der Spielraum für die Horizonte)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와 지평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일상적 삶 속에서 선개념적으로 어떻게 경험할까?

4. 일상적 삶의 토대는 생명의 보존(Lebenserhaltung)에 의해 제약된 다양한 활동양식들이다. 생명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는 어떤 목적들이 주어져 있다. 이 목적들은 그에 상응하는 수단들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도구적 활동이라고 부른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명보존을 위한 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선택가

능성의 활동가능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되는 인간 자유의 단초이다.

이러한 활동가능영역들은 지시연관들(Verweisungszusammenhänge)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실현되어야 할 목적들은 그에 적절한 수단을 지시하며, 거꾸로 목적들은 수단들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지시연관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이러한 활동가능영역들이 지평들이다. 개념 이전에 인간에게 친숙한 이러한 지평들이 그의 도구적 행위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가능영역이다. 인간에게 세계가 열림으로써 이러한 활동가능영역을 성립시키는 자유로운 공간이 비로소 풀려나 열린다 (freigegeben).

인간의 도구적 행위가 근원적으로 생명보존의 필요성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위한 활동가능영역들을 열어주는 현출운동으로서의 세계를 현상학의 정초자인 후설의 개념을 빌어 “생활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도구적 행위의 장인 생활세계는 하이데거에 의해 “존재와 시간”的 소위 “정황연관”(Bewandtniszusammenhang)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탐구되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평적 현출과의 친숙성을 생명보존의 필요성 속에서 경험한다. 우리는 생명보존의 필요성을 다양한 우리의 욕구들속에서 감지한다.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지평들을 열어주는 현출작용과 선개념적으로 친숙해진다. 우리는 생명의 쇄신(die Erneuerung des Lebens)을 위한 염려속에서 이러한 현출작용이 지난 운동이 이러한 쇄신운동과 동일함을 경험한다. 부단한 생명의 쇄신으로서의 지평적인 현출작용이 생활세계(Lebenswelt)이다.

생명의 쇄신을 우리는 생명체의 성장속에서 생생하게 확인한다. “성장”은 희랍어 단어 “physis”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출운동 및 현출차원으로서의 세계를 맨 처음으로 개념적으로 주제화했을 때 철학은 “physis”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5. 그러나 철학은 어떻게 *physis*로서의 세계를 개념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었을까? 앞서 지적하였듯이 일상인에게는 세계에 대해 명시적인 관계를 취함으로써 그를 주제화한다는 일이 불가능하다. 철학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세계가 지난 일상적 비주제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

현출운동은 숨겨져있음으로부터 열려있음으로의 이행이다. 현출작용이 하필이면 숨겨져있음으로부터의 드러남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출작용에 숨겨져있음과 열려있음이라는 양극성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자명하게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 일상적인 – 세계경험의 양상에서 세계는 비록 인간에 “대해서” “거기에”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것은 세계로서 열려져있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숨겨져있음으로부터 그 현출의 열려있음을 향해 풀려나 열려졌다는 경험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는 의지적 결단(Willensentschluß)을 통해서는 세계로서의 세계가 현출하도록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를 주제화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은 이미 세계로서의 세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지평들과의 친숙성은 바로 세계가 세계로서 드러나지 않았음을 통해 정의된다.

세계가 숨겨져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태도와 무관하다면, 이러한 양자택일의 가능성의 존재함은 바로 숨겨져있음 자체에서 연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숨겨져있음속에는 그것 자체의 숨김이 속해있다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 현출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서 숨겨져있음은 자기자신을 숨기고, 이렇게되면 현출작용과 함께 수행되는 세계의 열림 자체는 일상적인 경우 잠재적인 상태로 있을 뿐이다. *physis*로서의 세계에 대한 철학적 발견은 은폐성 자신이 이러한 열림의 출처라는 차원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숨겨져있음이 철학에 대해 일종의 세계내 대

상으로 주제화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숨겨져있음은 더 이상 현출작용의 숨겨진 출처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숨겨져있음은 단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즉 인간으로 하여금 그 현출이 숨겨져있음에서부터 풀려나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밖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감지케 하는 체험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러한 체험들이 바로 기분들(Stimmungen)이다.

6.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고대희랍에서 철학이 출발할 때 세계를 *physis*로서 주제화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실제로 일종의 기분이었다. 그 기분은 다름 아닌 경이(Staunen)였다. 철학의 전통적인 표현에 의하면 경이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경탄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계와 무 사이의 차이가 바로 경이로움을 통해 감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무는 바로 철학적으로 무의미한 무, 즉 그에 대해 유럽적 전통에서 널리 알려진 “*ex nihilo nihil fit*”,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명제가 표현하고자 한 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이속에서 무는 오히려 “세계”라는 차원이 우리에 대해 열려짐을 스스로 허락하는 바로 저 심연으로서 체험된다. 무는 이 경우 현출의 가능성을 자체내에 지니고 있는 모태와 유사한 그 무엇이다.

현출하는 대상은 세계의 열려져있음 속에서 자기자신을 드러내보인다. 그 속에서 그 무엇이 자기자신을 드러내보이는 바로 그것은 밝음(Helligkeit)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현출작용, 세계열림은 바로 무의 숨겨져있음이라는 어두운 모태에서 이러한 밝음이 출현함을 의미한다. 경이의 —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다른 깊은 기분들의 — 특성은 세계의 빛(das Licht der Welt)이 숨겨져있음이라는 어둠침침한 무로부터 풀려나 열리면서 비대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자신을 드러낸다는데 있다.

7.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이속에서 세계에 대해 명

료한 개념적 관계를 취하게될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주의는 세계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그가 그때그때마다 그가 몰두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있다. 따라서 세계는 인간에게 그러한 사물들과의 교섭속에서만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일상생활속에서 만나는 이러한 사물들은 도구적 행위를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도구적 행위를 함에 있어 우리의 주의가 수단들에 대응하는 목적들을 향해있어서 그 수단들로부터 벗어나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물은 그것이 쓸모 없게 되거나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되어 우리를 교란시키면서 잠시 우리의 주의를 끌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우리는 교란된 정황연관, 그리고 그와 함께 더 나아가 도구적 행위의 지평인 생활세계의 존재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교란이란 곧 바로 제거되어야 할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 경우 세계 역시 단지 잠시만 부분적으로 눈에 띄게 될 뿐이다.

지시됨의 운동을 통해서는 우리는 세계로서의 세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수 없다. 세계로서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 앞서 살펴본 교란의 경우처럼 — 잠시동안만 이러한 운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행위의 수단들에 머물도록(*verweilen*) 해야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물에 머물러있음을 기분을 통해서 유발된다. 그 한 예로 우리는 — 우리가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하듯이 — 세계내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 대해서 경이가 “불타오르듯” 솟아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이로와하면서 존재자에 머물러있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theoria*”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경이로와하면서 존재자에 머물러있게 되면 그 존재자는 그 속에서 세계의 밝음이, 즉 세계로서의 세계가 반짝이는, 말하자면 일종의 초점(Brennpunkt)으로 바뀐다. 다시말해 그 존재자는 “초점”으로 변하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밝음은 — 비대상적인 방식으로 — 한 점으로 모아져 나타나고, 세계는 그의 숨겨져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현출작용 자체가 빛날 수 있을까?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에 이르는 범주론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사물의 본질을 실체와 우연적 속성이라는 근본적 구별에 의지해 규정하려고하는 한, 철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시할 수 없다. 아주 초기의 희랍적 사유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사물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에 대해 시사하는 의미가 지대하다. 희랍 초기의 철학 및 과학의 입장에서 볼때 개별적인 사물은 그 속에서 생활세계가 빛나는 초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세계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물에게서 한 원소(Element)가 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원소들이 “혼합됨으로서만” 구체적으로 현출한다. 현대의 철학은 왜 고대희랍인에게 있어 과학이 원소들에 대한 우주론으로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충분히 성찰하지 않고 있다. 생활세계는 삶의 쇄신운동으로서의 현출작용 그 자체이다. 스스로를 쇄신해나가는 삶을 우리 인간은 원소들속에서 체험한다. “원소”라는 개념은 이 경우 근대자연 과학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기, 물, 그리고 흙이 각기 새, 물고기 그리고 지상동물들의 원소이다라고 말할때 이 원소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의미의 원소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명체가 살아나가는 바의 그것을 뜻한다.

9. 원소들이 말하자면 특정의 얼개를 이루면서 집결하는 장소들이 사물들이다. 개별적 사물들의 존재는 따라서 실체와 우연적 속성이라는 관계를 통해 범주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그것의 본질은 오히려 다름아닌 원소들에의 참여를 통해 결정된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되고 있는 참여를 마치 원소들은 커다란 재료덩어리이며, 그것이 작은 양으로 개별적인 사물들에 배당되리라는 식으로 표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원소들이란 세계가 세계 자체로서 현상하는 다양한 방식들이다. 원소들이란 이처럼 세계가 현출하는 다양한 모습들이다. 한 사물이 그때 그때마다 특정 원소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경우, 이러한 말은 그에 대응하는 현출방식들이 — 마치 세계 자체

의 다양한 빛깔처럼 — 이 사물 속에서 체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들면 어떤 하나의 돌멩이는 “흙”이라고 하는 재료덩어리중의 한 조각을 그 구성부분으로 포함하고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흙이라는 원소는 — 다시말해 우리가 “어두움”, “닫혀있음”, “굳어있음”, “품음과 숨김”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출방식인데 — 이 돌멩이 “전체에” 펴져 고루 고루 존재하는 것이다. 원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물들의 관계는 세계전체의 전포괄적인 하나의 공간에 대한 개별적인 공간들 — 어느 한 방의 공간, 어느 그릇속의 공간 등등 — 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칸트가 최초로 통찰하였듯이 “하나의” 저 공간은 마치 하나의 커다란 빵이 조그만 빵조각들로 나뉘어지듯이 개별적인 공간들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공간들 속에는 나뉘어지지 않은 채 “저” 하나의 공간이 “현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소들은 나뉘어지지 않은 채 모든 개별적 사물에 현전한다.

10. 그러면 도대체 세계는 — 현출작용은 — 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자신을 드러낼까? 현출작용이라는 운동은 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숨기고있는 어두움으로부터 밝음의 차원이 열림으로서의 생명의 쇄신이다. 세계는 그것이 언제나 개별적 사물들에게로 초점이 마춰짐으로써만 세계로서 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출 운동은 어떤 하나의 사물속에 들어있는 운동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사물적인 운동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난다.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어두움은 그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생명이 쇄신되는 영역인데, 이것이 다름아닌 땅이다. 반면 하늘은 열려있는 빛의 차원인데, 바로 여기에서 땅의 저 어두운 닫혀있음으로부터 풀려난 것이 생명을 얻게되고 현출하게 된다.

하늘과 땅은 각기 “위”的 영역과 “아래”的 영역이다. 이 두 영역 사이의 구별은 우리 인간이 생활세계내에서 사물과 교섭하면서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근본적인 경험을 하는데서 유래한다. 그를 향해 생명의 쇄신운동이 일어나는 영역인 하늘은 가벼움으로 인해 생명체의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를 위한 터전을 제공해

주는 원소들로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빛이 지닌 따뜻함,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 가장 미미하게 저항할 뿐인 공기가 지닌 투과성이다. 이에 비해 세계의 아래 영역에는 무엇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해 저항하는 “흙”이 속한다. 여기서 지적된 흙의 저항은 흙이 그 싸늘함과 혼탁함으로 인해 생명체의 운동을 저해시키고 굳어버리게 하는데서 드러난다.

바다나 하천의 물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역시 땅과 함께 세계의 아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흙이라는 원소와 비교해볼 때 물은 어느정도 투명성과 투과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때문에 물은 하늘에 있는 가벼운 원소들과도 친화성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우리는 생활세계에서 비가 옴, 김이 서림, 이슬이 내림, 안개가 낌 등의 현상들 속에서 경험한다.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원소들의 우주론에서 세계로서 현출하는 세계는 현출작용과 생명의 쇄신으로서 운동이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있기 때문이다.

11. 생활세계라는 우주의 근본 구조는 세 가지 축, 다시 말해 하늘과 땅, 그리고 양자의 매개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대응해서 엄격한 의미의 생활세계적 우주론은 하늘의 공기, 아래 영역의 흙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물등 본래 세 가지 원소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 가지의 원소가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유럽의 사상가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실제로 세 가지 원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철학에서 거의 간과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이미 그 이후에 전개된 고대의 우주론에서 전형적인 네 번째의 원소로 등장하는 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철학자들과는 달리 그는 불이 나머지 세 가지 원소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원소임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불”은 현출작용과 생명쇄신의 운동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명칭이다. 이러한 운동은 나머지 세 가지 원소에서는 직

접적으로 현출하지 않고 다만 우주 내에서의 하늘과 땅의 적대적인 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현출한다. 이와는 달리 불에서는 열려져 있음이라는 차원인 “세계”의 스스로-열림이라는 운동이 직접적으로 현출한다. 생명의 쇄신으로서의 이러한 운동은 희랍어로 “physis”라고 불린다. 불이라는 원소가 의미하는 바는 말하자면 physis 자체이다.

12. 구체적인 생활세계적 우주론적 경험에 의하면 생명체가 어두운 땅에서 솟아나와 하늘이라는, 빛으로 가득찬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이는 데서 우리는 physis의 정체를 확인한다. 여기서 땅은 많은 것을 산출해내는 생명의 모태일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생명적인 현출의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땅이 생명체를 단지 일시적으로만 빛속에서 현출하도록 풀어주면서 열어주는데서 우리는 현출작용속에 들어있는 심연과도 같은, 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 즉 세계의 열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를 발견하게 된다. 생명의 생성, 다시 말해 출생에는 그의 이면인 죽음이 속해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활동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생명의 쇄신이라는 상태와 생명에 대해 죽음이 일시적인 승리를 구가하는 상태는 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면서 교차된다. 주기성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성격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고대 희랍의 과학은 밤과 낮, 여름과 겨울, 건강함과 병듦, 젊음과 노년등 인간적 생명뿐 아니라 우주적인 생명도 지배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기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이 주기성을 통해 우주론적으로 경험되는 현출작용이라는 생명의 쇄신운동이 우리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이란 죽음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불은 빛이요 따뜻함인데, 이 두 양자는 연소와 파괴를 통해 생명을 선사한다. 후기에 사원소설이 정립되어 가면서 불이 지닌 특수한 위치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사상은 점차 잊혀가게 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러한 사상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13. 불이 지난 특수한 위치가 잊혀져가는 계기는 이미 헤라클레이토스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한 단편에서 그는 금은 — 이 경우 돈을 의미하는데 — 모든 것과 교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불을 금에 비유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치 상품과 마찬가지로 불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은 우주 전체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셈이다. 전체 우주에 대해 하나의 통일적인 화폐가 존재한다면 우주는 모든 존재자들을 수용하는 일종의 거대한 상품보관소라 할 수 있다. 원소들로 이루어진 우주에 대한 생활세계적 경험에서 불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무 때문에 세계는 인간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세계가 일종의 상품보관창고라면 자연은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대에 불이라는 원소가 처하게 된 운명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생활세계에서 인간에게 생명, 빛 그리고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더이상 “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너지”라고 부른다. 고대 유럽의 생활세계에서 생명을 보존해주는 장소는 집, 즉 희랍어로는 ‘oikos’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경제학(Ökonomie)과 생태학(Ökologie)등의 개념이 파생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로마인들이 살던 집을 잘 연구해보면 알 수 있듯이, oikos의 중심은 생명을 베풀어주는 불이었다. 불은 초점으로 수렴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지금까지 세계, 즉 physis라고 하는 불은 생활세계에 있는 개별적 사물들을 초점으로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인간의 사회공동체가 고대에 oikos가 점했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욕구충족과 노동에 있어 모든 인간이 상호의존

적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생명보존의 현대적 형태이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상호의존성이 우리가 오늘날 “사회”(Gesellschaft)라고 부르는 것의 특징이다. 모든 인간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은 그 사회가 사회구성원 모두 두루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성립될 수 없다. 사회공동체의 생이란 이러한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유지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에너지 조달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존재를 위한 근본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에너지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여타의 문제보다도 우선권을 지닌다. 그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자연은 커다란 에너지 저장창고에 불과하다는 기본적 태도를 통해 본질적으로 규정된다.

14. 에너지에서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실뿐이다. 따라서 에너지가 개별적인 경우에 어떠한 성질을 보이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성이 없는, 균질적인 물량이며, 사회적 생명보존을 위해 필요한, 힘의 척도에 불과한 단순한 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의 생활세계에서 에너지는 외형적으로 볼 때 고대에 불이 차지했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은 앞서 말했듯이 삶과 죽음, 빛과 어둠, 따뜻함과 차등 일련의 주기성을 통해 규정된 성질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성질들 덕분에 원소들로 구성된 세계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주기를 보이는 생명체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불이 지니고 있던 이처럼 분화된 성질들은 현대의 지구촌 사회에서 동일한 형태를 지닌 에너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생활세계는 그것이 원소들로 구성된 우주로 경험되었기 때문에 세계로서 현출할 수 있었다. 불이 어떠한 성질도 지니지 않은 에너지로 변형되면서 이 우주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에 대해 생활세계가 망각되

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불이 지닌 여러가지 성질들 속에서 현출작용의 토대인 무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활세계에 대한 망각은 그 심층적인 의미에서 고찰하면 무에 대한 망각이다.

현출작용 속에 들어있는 불이 균질적인 물량일 뿐이라면 불은 개별적인 사물들 속에서 초점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더 이상 아니다. 무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인간 사회의 처분을 벗어나는 그 무엇의 존재, 즉 우리 인간의 작위적인 간섭에 대항해 사물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 무엇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제 이 강연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모든 존재자를 다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 말하자면 기능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 상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콘테이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현대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콘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

15. 불로서의 *physis*에 대한 망각과 더불어 경이라는 깊은 기분의 성립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그리고 그와 함께 유럽철학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현출작용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요소가 망각되기 시작하였다: 경이란 세계가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현출작용의 뿌리에 심연과도 같은 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였다. 그러면 무에 대한 망각이 철학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문화가 기술적-경제적 영역에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파괴적인 결과들은 오늘날 경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유럽적인 기분과는 대비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근본기분을 출현시켰다. 이 기분은 다름아닌 백일하에 드러난 바, 전 지구촌에 걸친 생태학적 파괴를 맞아 나타나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ein tiefgreifender Schrecken*)이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세계란 산업적 이용을 위해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물건보관창고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된다.

희랍초기에 철학이 출발할 당시에 희랍인들은 이미 세계가 놀랍게도 무로부터 출현한다는데 대한, 경외심속에 들어있던 경이감을 느끼면서 인간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이라는 계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이는 현대가 경험하고 있는 공포속에서 쇄신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physis 개념의 개념이전에 존재하는 출처를 현상학적으로 상기하는 작업은 오늘날도 여전히 가능하다. 문화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현대는 공포를 경험한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철학에서 출발해 동아시아의 자연이해와의 사상적인 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저 상기작용(Erinnerung)이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